



그리스 의회, 구제금융을 위한 긴축(안) 승인

정인영 연구원

- 그리스 의회가 2월 12일(이하 현지시각) 2차 구제금융 협정과 채무조정 양해각서(MOU) 승인(안) 표결을 단행한 결과, 찬성 199표, 반대 74표로 가결됨.
 - 법(안)에는 EU, IMF, ECB가 1,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긴축(안)이 포함되어 있음.
 - 긴축(안)은 최저임금 22% 삭감 및 연금 삭감, 연내 공무원 1만 5천 명 감원(2015년까지 15만 명 감원) 등을 통해 올해 33억 유로(GDP 대비 1.5%), 2015년까지 모두 130억 유로를 줄이는 조치들을 담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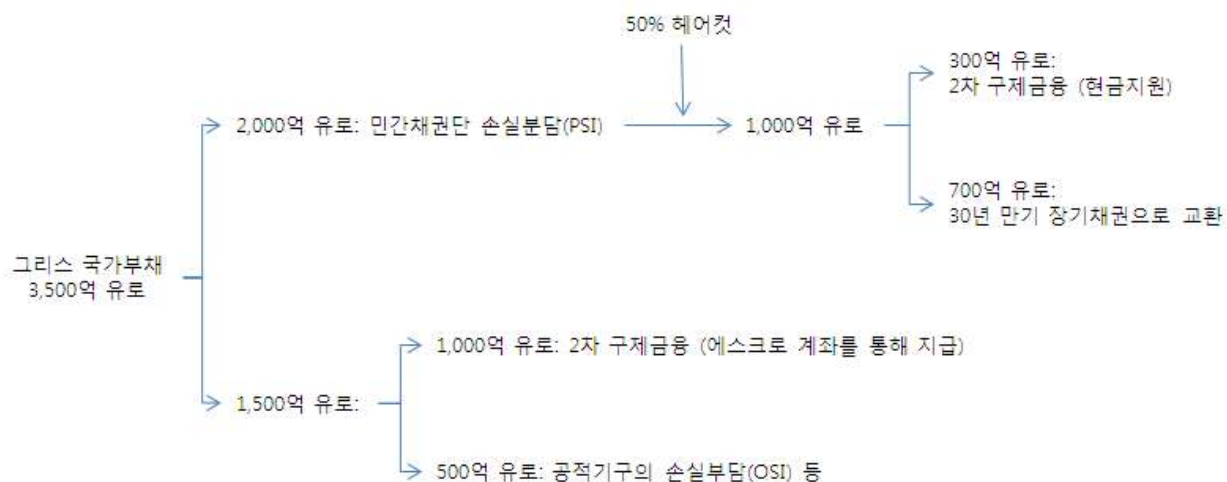
- 오는 2월 15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2차 구제금융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.
 - 이 날 기존 2차 구제금융자금을 약 150억 유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짐.
 - 그간 긴축 목표 달성에 번번이 실패한 그리스를 불신해왔던 독일 등이 어떠한 입장 변화를 보일지가 2차 구제금융(안) 최종 타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.

- 한편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한 축인 민간채권단 국채교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주시할 필요가 있음.
 - 그리스는 민간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약 70%의 손실률(순현재가치 기준)을 적용, 민간채권단이 보유한 2,0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채에 대해 금리 3.5%의 30년 만기 장기채권 700억 유로와 300억 유로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.

■ 또한, 향후 그리스 정부가 긴축이행 과정에서 반대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과제임.

- 그리스 전역에서 시민들과 노동계가 긴축(안)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태로 12일 아테네에서는 약 8만여 명의 시위인파가 몰리면서 방화 등 폭동으로 이어져 최소 8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짐.

〈그림 1〉 그리스 국가부채 감축 계획



(WSJ, NYT 등, 2/13)